

신규 저작권 침해유형 및 이슈 - 클럽하우스 앱과 저작권 침해 -

온라인보호부 | 김찬솔 선임

2021. 5.

클럽하우스 앱과 저작권 침해

가. 클럽하우스와 저작권 침해

1) 클럽하우스란

◆◆◆ [그림] App Store에서 제공되는 클럽하우스 이미지



2020년 3월 출시된 음성 소셜미디어로, 초대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음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보통 SNS는 이용자가 가입한 후 친구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데 반해, 클럽하우스는 기존 가입자로부터 초대를 받은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에게는 두 장의 초대권이 주며,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면 추가 초대권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은 글, 이미지, 동영상을 게시하고 댓글을 달며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방식이라면 클럽하우스는 대화방을 만들어 사용자를 초대하면 방을 만든 모더레이터¹⁾와 모더레이터가 지정한 스피커는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고 나머지 참가들은 이 대화를 듣기만 하는 구조이다. 대화방은 이슈, 직업, 정치, 예술, 건강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만들 수도 참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클럽하우스는 훌륭한 마케팅과 영업으로 성공을 만들어 냈고 단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2) 클럽하우스의 특징

클럽하우스는 기존 소셜미디어와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클럽하우스는 기존 소셜미디어와 달리 글, 이미지, 동영상 등 게시물을 눈으로 보고 읽거나 문자 채팅을 통해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음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음성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둘째 초대로만 가입이 된다는 점이다. 기존 소셜미디어가 앱을 설치하여 회원가입만 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자동으로 매칭하거나, 아이디를 추가하는 방식이라면 클럽하우스는 앱을 설치하더라도 기존 가입한 회원의 초대장을 받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다. 클럽하우스에 가입한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두 장의 초대장을 갖게 되는데 이 초대장을 가지고 두 명의 친구를 클럽하우스에 초대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된다. 하지만 초대장을 받지 못해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가입 후 활동을 열심히 하면 초대장을 추가로 제공하기도 하고 초대장이 없어도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가입을 기다리면 대기자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한해 해당 대기자를 가입 승인해 줄 수 있다. 셋째 클럽하우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화는 저장할 수 없어 기록이 남지 않는 휘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넷째 유명인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연예인이나 CEO 등 일반인이라면 평소에 범접할 수 없는 유명인과도 앱을 통해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앱을 이용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1) 모더레이터란 회의나 토론 석상에서 사회를 담당하는 사람을 뜻한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나. 클럽하우스와 저작권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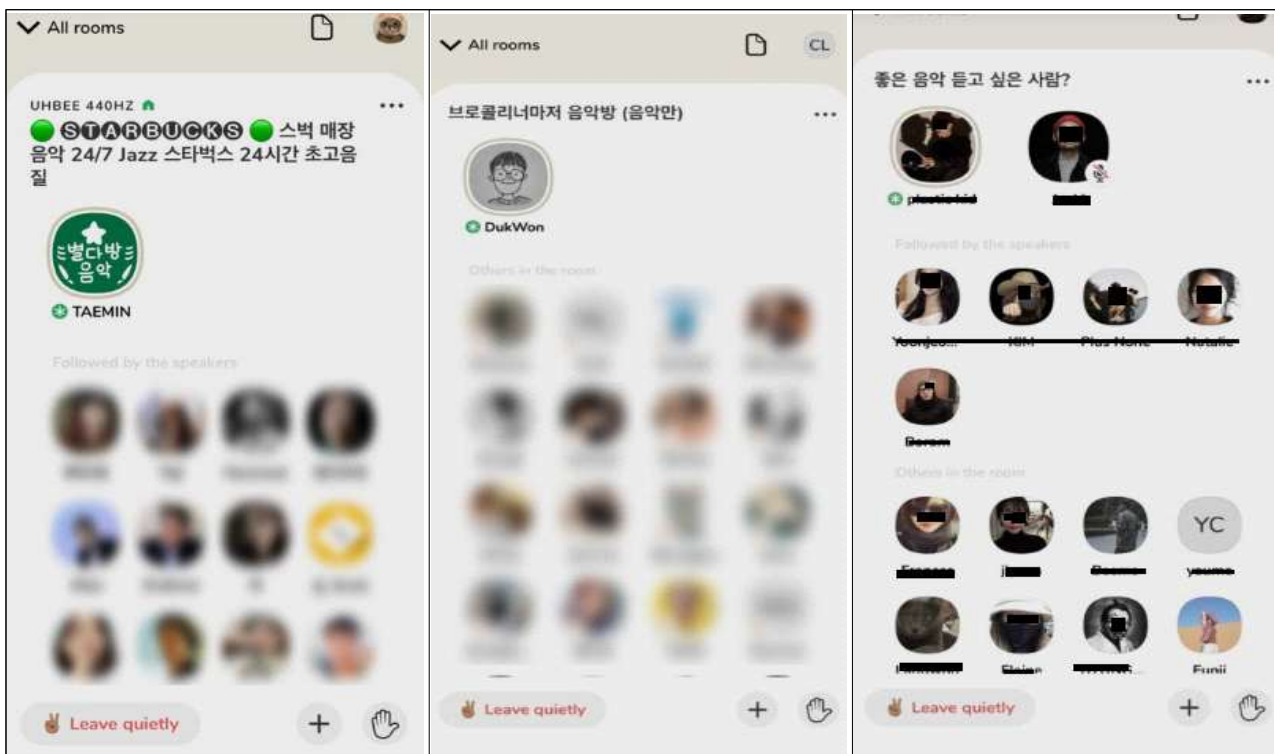
1) 클럽하우스의 폐쇄성

클럽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바로 ‘폐쇄성’이다. 신규 가입자는 일 인당 두 장씩 주어지는 기존 가입자의 초대장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팔로워를 기반으로 추천하는 방에만 입장할 수 있다. 그리고 방 개설자가 방을 닫게 되면 앱 내에서 녹화나 녹음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 안에서 발생한 대화 기록들이 사라지게 되는 폐쇄성을 갖게 된다. 다른 소셜미디어와 달리 폐쇄적인 점이 클럽하우스의 매력이자 차별로 꼽히고 있는 점이다. 다른 소셜미디어와 비해 폐쇄적이라 집단성이나 조직력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정보를 나누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원천 정보가 있는 전문가들 중심의 위계 구조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2) 클럽하우스의 저작권 문제

클럽하우스는 앱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음성만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비록 온라인일지라도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중 저작권 침해 문제를 살펴 보도록 하자. 방 개설자가 가요나 팝을 실시간으로 틀어주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책을 읽어준다면 이는 충분히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유튜브나 개인 방송에서 음악, 영화, 방송 등을 권한 없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전송하는 사안과 같은 것으로, 클럽하우스의 폐쇄성 탓에 침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뿐 클럽하우스의 등장과 함께 지속해서 지적되던 부분이다. 실제 클럽하우스에 내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방을 찾아보았더니 실시간으로 음악을 틀어주는 방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 클럽하우스 앱에서 개설된 음악방



3) 공중송신권 침해 문제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1호.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클럽하우스 앱을 통해 음악을 실시간 제공한다면 저작재산권의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을 침해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미디어의 기술발전²⁾에 따라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방법 중 디지털음성송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기존 저작권법은 방송권에 관한 규정만 존재하였는데 2000년 일부 개정을 통하여 전송권 개념을 도입하였고, 2006년 전부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방송권과 전송권에 디지털음성송신권을 추가하여 공중송신권으로 통합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은 실시간 웹캐스팅²⁾이 방송과 전송 중 어느 개념에 포섭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더욱 넓은 의미로서 공중송신의 개념을 도입하여 입법상의 불비를 바로잡고 국제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한편, 디지털음성송신은 동시성을 띠면서 이용자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송과 유사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쌍방향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과는 구별되었다.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1호에서 말하는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은 수신의 동시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중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부분은 쌍방향 송신의 특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음악을 청취할 수 있는 비주문형 웹 캐스팅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특정한 메뉴를 클릭함으로써 수신자의 수신 정도 및 송신 요청 신호가 서비스 제공자 측의 서버에 전달되면 서버로부터 수신자의 기기를 향한 스트리밍 방식의 송신이 개시되는 점에서 “공중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쌍방향 송신이라는 점에서 방송과 구별되고 수신의 동시성이라는 점에서 전송과 구별된다. 이처럼 클럽하우스 내에서 방을 만들어 음악 등을 제공한다면 공중송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수반된다. 최근 유튜브나 아프리카TV(개인 방송 플랫폼)는 음악 신탁관리단체와 협약을 맺고 있어 스트리밍 방송 중 자유롭게 음악을 틀어줄 수 있으나, 클럽하우스는 그러한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법 위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다. 시사점

클럽하우스와 같이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항상 사회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법은 느리고 보수적이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는 법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법이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결국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야 법을 정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매번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규제를 하는 것 역시 올바른 일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새로운 매체는 지속적 해서 등장할 것이며 이에 환호하는 대중들도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밀려오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올바르게 흐를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웹 캐스팅: 여러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동시에 비디오나 오디오 생중계를 보내는 프로그램 방식 [출처: 매일경제]